

신년사



이 낙 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괴로웠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아쉽게도 새해가 희망보다 걱정 속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습니다.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금은 혼란과 불안이 더욱 큼니다.

그러나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되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습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지속하겠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디지털과 그린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를 지혜롭게 창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얻겠습니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숭한 위기를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성취는 세계 유일의 기적입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공시켰습니다. 민생은 아직 어렵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는 선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국민이 계시기에 새해의 '회복'과 '출발'도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살자는 일류국가를 만듭시다. 서민을 지탱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룹시다. 기업인의 야성과 청년의 도전을 복돋는 활기찬 경제를 세웁시다.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는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승 남

전남도당 위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이 지치고 힘들었던 2020년 한 해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저물고 2021 신축년(辛丑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금소의 해'인 2021년 새해에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를 물리치고 도민·당원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새 해를 맞아 그린뉴딜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등 한국형 뉴딜정책을 적극 뒷받침하여 다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남은 지난 해 2021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최대인 8조 원에 가까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문재인 정부 하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 원, 각 지자체,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당원 동지여러분의 지지와 성

원이 있었기에 이를 수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당원 동지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과제와 함께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 정치일정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재·보궐선거(4.7)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집권당이자 책임정당으로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심기일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기 위해 총선 직후 다집했던 겸손과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흔들리지 않은 원칙과 공정으로 전남도당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남의 현안도 반드시 챙겨나가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전남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업이 한국형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농정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추진을 통한 전남 신관광인프라구축,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등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린 뉴딜'과 '바이오', 생태·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과대학 및 방사광가속기 유치, 초소형 발사체 개발 등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숙원사업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에 최우선의 정책적 과제를 두고 도정과 국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신축년 새해! 도민·당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영 록

전남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과 근면, 평화를 상징하는 소의 해, 신축년이 밝았습니다.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와 재해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도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 덕분에 「전남 행복시대」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도민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도민들께 행복을 전해 드리는 희망 도정을 펼쳐겠습니다.

새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 가치

의 존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전남의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를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초대형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함께 새롭게 '초강력 레이저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전남·광주·전북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휴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등을 연계해 'K-면역 바이오 혁신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어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농어업을 융복합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고, 미래의 주역인 '새천년 으뜸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면 뜻을 이룬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전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한 중

전남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우리 전남 곳곳에는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도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민생을 지원했습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찾아가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특별위원

회를 통한 호우피해 실태 파악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도민 모두는 지쳐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는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뉴노멀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57명의 도의원은 위기를 넘기면 희망이 온다는 운외장천(雲外蒼天)이라는 격언처럼 코로나라는 먹구름 속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 삶에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

“지역 정치권 혼연일체 돼 역할분담, 총력 기울인 결과”

전남, 올해 보다 6.6% 증액된 7조6671억 국비 확보

2년 연속 7조 원대 예산, ‘블루 이코노미’, ‘한국형 뉴딜’ 탄력

전남도당은 지난달 8일 전남도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남도가 역대 최대인 8조 원에 가까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전남의 국비예산은 7조6671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7조1782억 원보다 4889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올해 국비 예산 7조1896억 원보다 4775억 원(6.6%) 증가한 것으로 전남의 핵심사책인 블루 이코노미와 미래 먹거리 사업 기반 구축,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은 SOC 분야에서 경전선 전철화사업(보성~순천) 예산 110억 원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돼 297억 원을 확보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사업도 240억이 증액

된 2240억 원을 확보했고,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도 20억이 증액된 40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설계 및 부지 매입비 43억 7000만 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7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 용역비 2억 원 등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광분야에서는 천사대교 보행로 개설 용역비 4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20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사업 설계·공사비 11억 원도 확보했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수산업단지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물레이션 구축비 20억원,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 부지매입비 20억 원도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

이런 성과는 전남도당이 컨트롤 타

위가 돼 광주·전남 출신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김원이(목포)·서동용(순천광양구례국성을)·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과 광주·전남 유일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약한 서동용 의원 등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각 당 예결위원, 정부 부처 관계자와 만나 자료 전달과 적극적인 설득, 협조를 구한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관계공무원과 기재부의 안도걸 예산실장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주시는 이낙연 당 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김한중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시장·군수들께도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당,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장흥읍 금성리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통해 40가구에 연탄 8천장 전달



전남도당은 지난달 3일 오전 장흥읍 금성리 독거노인 이모씨의 집에서 ‘사랑의 연탄 후원 및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연탄 200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사랑의 연탄 후원 및 나눔’ 행사에는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과 이재한 장애인위원장, 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여했다. 전남도당은 연말을 맞아 기초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40개 가구를 선정해 가구 당 200장 씩 모두 8천장의 사랑의 연탄을 후원할 계획이다.

김갑봉 도당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달 행사 없이 연탄은행을 통해 사랑의 연탄을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당 ‘COP28 여수유치지원특위’ 구성

위원장 강문성 도의원, 부위원장 김길용·백인숙

도당 차원 전략 수립 지원, 정부중앙당 COP 유치 지원활동



강문성 특위위원장



김길용 도의원



백인숙 여수시의원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위해 전남도당이 ‘COP28여수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당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인 유치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당은 지난달 2일 강문성 전남도의원(여수2)을 COP28여수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길용

도의원(광양3)과 백인숙 여수시의원을 특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이광일(여수1)·민병대(여수3)·최무경(여수4)·최병용(여수5)·강정희(여수6)·오하근(순천4)·박진권(고흥1)·이현창(구례) 도의원, 문갑태 여수시의원 등 전남 동부권 지방의원 14명이 선임됐다.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최종 의사결정 회의로 198개 회원국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COP는 매년 대륙별로 순회 개최되며, 제28차 총회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수시는 COP28을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해안 남종권에 분산 개최할 방침이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전남과 경남이 함께 참여해 유치에 나선 COP28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국제행사”라며 “앞으로 도당 특위가 중심이 돼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여수가 반드시 COP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경남도의회, COP28 공동유치 협약

남해안·남종권 공동유치 협약 체결...영호남 협력모델 구축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과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간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종권 공동유치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의회는 이날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태평양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남해안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남해안의 발전 목표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사회와 산업으로의 전환에 두고 COP28 공동유치와 관광자원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에 COP28 국내유치를 확정하고, 하반기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COP28에서 대한민국 유치 의사를 표명하며 2022년 상반기에 국내 개최도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을 위한 전진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위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격차해소 주거안정 등 민생회복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출범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2022년 정권 재창출 “앞장” 결의
...장흥 우드랜드 야외공연장(11. 24)



전남도당은 지난 11월 24일 장흥 우드랜드 야외공연장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박현숙) 임명장 수여 및 출범식을 갖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2022년 재집권 및 지방선거 승리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사진>



박현숙 여성위원장

이날 행사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승남 도당위원장,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 홍정임·전명숙·문점숙·조성숙 여성부위원장을 비롯한 여성 위 집행부와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여성당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명희 도의원(비례)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김성희 전 광양시의회 의장, 이순이 전 해남군의회 의장, 이승욱 구례군의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원으로 진명숙 여수갑지역 여성위원장을 부위원장에, 하혜순 전 여성국장 등 4명을 여성국장에 임명하는 등 4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수여식을 마치고 인사말을 통해 “강한 도당 건설을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오늘 여성위원회 확대 개편과 출범식을 계기로 여성당원의 왕성한 활동으로 대선 승리와 더불어 지방선거 승리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은 “각 지역 여성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도당 여성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땀땀 뭉쳐 뛰겠다”고 결의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 시·군 청년위원장들과 비대면 신년회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고용진 도당 청년위원장과 22개 시·군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화상 대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고충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시기”라며

“모두가 합심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진 반영호 청년위원장은 대파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도당 상임고문에 국창근·이완식·이춘웅씨

상임부위원장 유근기 곡성군수·김정오 시군의장협의회장 임명
고문·부위원장단, 특위위원장 등 108명 당직 인사 단행

전남도당은 도당 상임고문에 국창근 전 국회의원과 이완식 전 도의회 의장, 이춘웅 김대중정신계승회 회장, 고문에는 배용태 전 남도 행정부지사, 상임부위원장에는 유근기 곡성군수와 김정오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고문단과 상임부위원장 당직개편을 지난 11월 6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도당은 이어 부위원장에 구복규 도의회 부의장, 황정호 광남일보 사장, 조명래 전 도당부위원장, 최화삼 전 담양군의회 의장,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 장세선 전 고흥군의회 의장, 송영종 전 순천부시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총 108명

의 신규 당직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발표된 당직 인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실장에는 김연규 전 장흥군 연락사무소장,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 나창도 전 도당 운영위원, 교육문화특위 위원장에는 민병홍 전 도의원,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에 김선채 전 건설산업특위 위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도당의 운영목표를 2022년 재집권 및 지방선거 승리에 두고 상임고문과 부위원장단을 비롯한 각급 특위위원장 등을 추가로 위촉해 다양한 도민·당원여론을 수렴해 주요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4·7 보궐선거 예비후보 공모 8명 출사표

순천·고흥 도의원 각각 4명·2명, 보성군의원 2명 접수
검증위 적격 심사 모두 통과...3월 초까지 공천 완료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전남지역 광역의원 2곳과 기초의원 1곳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보궐선거 예비후보 공모 결과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21일 4·7 보궐선거 예비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광역의원을 뽑는 순천1선거구에 4명, 고흥2선거구에 2명이 신청했고, 보성군의원(다선거구) 선거에는 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 선거구 2곳은 지방에 의한 사망으로, 보성군의회는 비리혐의로 자격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순천1선거구에는 양동조 순천시 재향군인회장과 주윤식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 정병희 전 전남도의원, 장길태 순천만나눔재단 상임이사가 등록했다.

고흥2선거구에는 유민식 전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전남선대위 고흥 정책위원과 박선준 고

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보성군의원 선거에는 조영남 전남도당 상무위원과 박정옥 전 보성군청 재무과 징수계장이 등록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주관으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열어 당의 부적격 기준인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투기성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적격 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편 전남도당은 조만간 경선 등의 일정을 확정하고 3월 초까지 보궐선거 공천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연수 실시

고흥·보성·장흥·강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순회 실시
...당 정체성 확립 및 성인지 감수성 전문가 특강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각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당 정체성 확립과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순회 교육연수를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했다.

선출직 공직자 교육연수는 당헌·당규 개정과 따라 매년 하반기 중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당원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

뤄졌다.

가장 먼저 지난 10월 29일 보성 지방의원합동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 교육연수에는 이승욱 강진군수와 신민호 도당 교육연수위원장(도의원), 임영수 도의원(보성연락사무소장), 임용민 보성군의회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용재 도당 당기위원장(전 도의회 의장)이 ‘민주

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김경례 전남대 교수(사회학과)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각각 특강을 했다.

도당은 30일(금)에는 목포, 11월 5일(여수갑) 여수갑 등 10개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12월 18일(여수을)까지 하반기 선출직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2022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출직 당원 뿐 아니라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한 핵심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단죄, 역사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주요 쟁점이었던 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5·18 진상규명에 큰 진전을 이룬 판결이다.

광주지법은 30일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18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헬기사격은 단순한 군의 자위권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없는 만행이었지만 그동안 신군부의 부인과 은

폐로 어둠 속의 진실로 묻혀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해온 ‘신군부의 수장’, 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미완의 과제인 발표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처리 등의 진실규명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11. 3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①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 ② 김승남 도당위원장 방역봉사 활동
- ③ 고흥보성장흥강진 핵심당원 연수
- ④ 목포 핵심당원 연수
- ⑤ 나주화순 핵심당원 연수
- ⑥ 여수갑 핵심당원 연수
- ⑦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핵심당원 연수
- ⑧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핵심당원 연수
- ⑨ 해남·완도·진도 핵심당원 연수
- ⑩ 영암·무안·신안 핵심당원 연수
- ⑪ 여수를 핵심당원 연수
- ⑫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



더불어 광장 2021. 01. 25 (제28호)
발행인 | 김승남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9.3조원

약 580만명!

긴급피해지원 5.6조원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임차료 경감 지원 등)
-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00억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방역강화 0.8조원

1. 코로나 방역 강화 **8,000억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맞춤형 지원패키지 2.9조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조원 (26만명)**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2.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원 (102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처우개선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3,000억원 (57만명)**

- 긴급복지 확대
- 돌봄부담 완화